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빨리 터득할 수 있으려면

문 저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 불자입니다. 몸은 산간 오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마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할 수 있을는지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참나를 속 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답답한 이 마음을 통쾌하게 열어 주시기를 발원하옵니다.

답 거리가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한마음으로 통쳐서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간 법계와 지구 자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연에 얽혀져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하는 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바빠서 서두르면 사람이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가 통을 누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슨 말을 들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은 한생각 잘해서 끌려라 이거죠. 한생각을 잘해서 끌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공부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곱데기를 추려서 달아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우리가 보이는 곱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습 이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면, 수레바퀴 아니라고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왜 안된다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쉬지 않고 끌려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수레바퀴는 끌러가는데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세금세 찰나 찰나 회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한 도리를 알면 여러분이 애만지랄할 게 없이 힘이 없이 하루가 끝났구나. 힘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여 봤구나. 힘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힘이 없이 웃었구나. 힘이 없이 성냈구나. 이렇게 그냥 힘이 없다는 것만 알면 죄가 불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열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업보성이 거기 불을 일도 없어요.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 짓을

내가 공한 것을 안다면 세세생생 자유 얻게 돼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 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오시면 얼굴에 기미가 끼고 벌써 저저하면 아주 애만지랄하고 사시는 게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싶라고 그러면, 언젠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와요. 그게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니까 말이지 이거는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돼 돌아가는 건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습 때문에 어찌해 볼 수 없이 똑똑 그냥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못한다 한다가 나오고 이런 거죠. 살면서 '모든 걸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우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밖에는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 법이다. 허공을 걷는다 이럴 땐 가고 음이 없이 넘어 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하지 못한다 한다도 거기 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을 짓는 데에 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하나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차원이 주어지죠. 또 행이 주어지고 습이 주어지고, 그 습도 힘이 없이 주어지죠. 그래서 습이 있을 때에 불을 게 소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그냥 평등하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이다. 생각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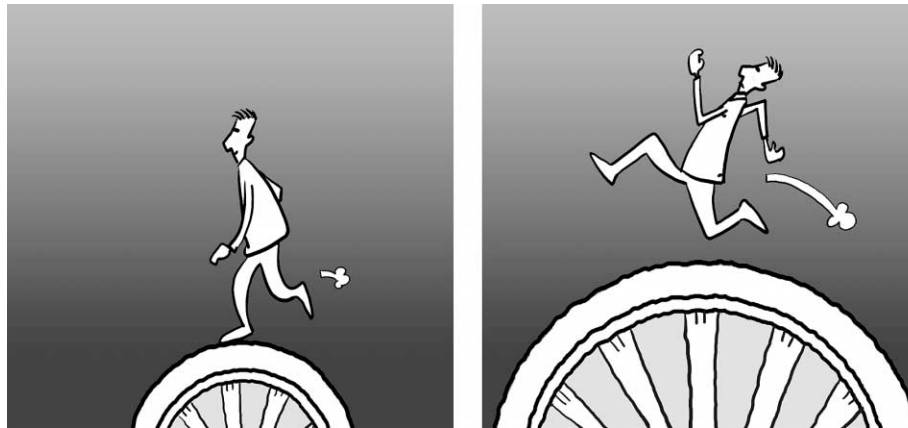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은산철벽을 뚫기 위해서는 오직 그 자리만을 뚫어야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고
밀고 넘어가는 믿음과 그 패기!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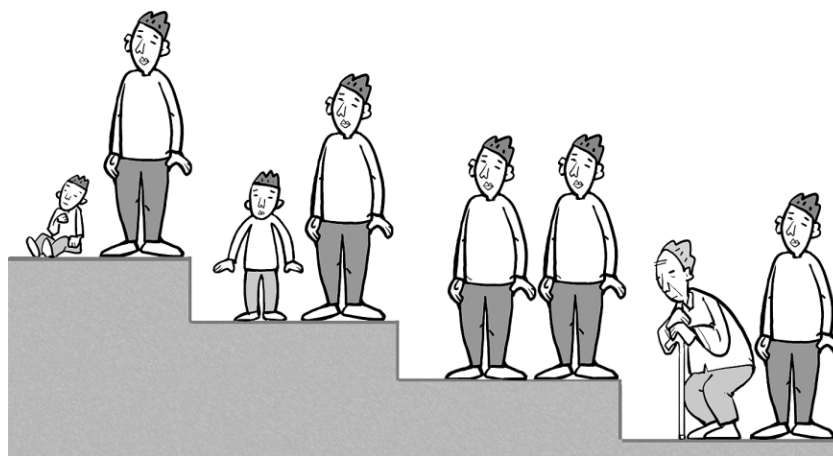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면 안 볼고 모든 게 평등하고, 생각을 못하면 줄 줄이 붙는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하고 천 리를 한 발짝 떼 놓는 거나 같아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 한 번 하면 그 생각이 음파를 통해서 파장이 돼서 우주간 법계가 다 알게 되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습이 배라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로 모습 아닌 선장이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인지 여러분이 아니라 얘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공생이면서 공생이면서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살아나가는 진리 속에서 본다면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 건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다 전지고도 남아요.

여러분 아닌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불성이자 주인공이에요. 이게 하지않은 말 같지만 여기에 서 잘 묘미 있게 하신다면 정말 도구를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나 겉으로 듣지 마세요. 하지않은 말이라도 한번 골려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세요. 달라질 테니까요.

진정 그 자리뿐인지요?

문 없는 문을 열려면 힘이 없어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냥 끝없이 걸어가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막막하고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오직 나의 근본을 찾아서 밝히는 이 공부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존재의 이유인지요? 진정 그 자리뿐인지요?

답 팔상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서서 열반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나라.' 하는 의미로 뼈 무더기가 쌓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공손히 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생자부이신 데 어찌 뼈 무더기예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니라.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증조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이 말 한마디로, 뼈 한 무더기를 비유한 말 한마디로 팔상성도의 과정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진화되고 형성되고, 부모 자

식 형제 이렇게 바뀌 거면서 자꾸자꾸 나투어 가는 그 도리를, 그 섭류를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뼈 한 무더기하고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자기가 자기를 리드하는 걸 차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너의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구나.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내가 몸뚱이로 모습을 보일 뿐이지 그저 돌이 아니게 내가 일을 할 때면 나로 하나로 돼 주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면 너로 하나가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행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콤피가 돼서 그냥 아버지가 돼 주죠? 근데 부인이 또 "어보!" 하고 부른다 말입니다. 그럼 할머니 남편으로 화해서 남편의 역할로, 아내와 남편 역할로 콤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애, 아무개야!" 부르면 또 아들이 되고, 그 부모 자식이 한 콤피가 돼서 한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신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하죠.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하면 법신이 돼야지 망신이 돼서는 안 되죠? 법신은 한생각으로서 굳건히, 거기가 모든 것을 밟고 밟겨 놓으니까 애비와 자식이 동시에 움직여주기 때문에 법이 돼서 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망신이 되면 해결도 못하고 몸만 망가지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못 살게 되고 일은 일대로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한생각 말합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란 문수다 이거죠. 움직여왔다 하면 보현이니 화신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제가끔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소립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행하질 못하느냐? 왜 그렇게 앞뒤가 꼭 맞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은산철벽같이 막힌 거를 정으로 다 가 뚫기 위해서 오직 그 자리만 뚫으라고 했던 말입니다. 방편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들고 내는 자리도 그 자리고, 정수에 일러져서 나오는 자리도 그 자리고, 흥신이 되는 자리도 그 자리다 이겁니다. 우주하고 직결된 자리도 그 자리고 만물만생하고 가쉽이 된 자리도 그 자리니 그 자리에서만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고 보다가드가 돼 줄 수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타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자리입니다. 위로 부모 조상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것도 그 자리요, 자식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분한테 보배가 제가끔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체를 그 자리에 내려 놓으십시오.

모진 세파를 견뎌내려면

문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 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작게 우리나라의 문제만 해도 대통령의 재선임 문제와 총선, 이라크 파병, 수도 이전 등 정치적인 문제에 서부터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밝은 새해를 앞 다퉈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는 저희들이 이러한 모진 세파에 주장심을 잃지 않고 내면을 일깨우는 마음공부를 흔들림 없이 해 나가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는지요?

심성 해탈이라야만이 실천할 수가 있어

답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가 공한 줄 알고 네가 공한 섭류를 안다면 모든 게 여여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공한 거를 안다면 고통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세세생생에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면 하늘이 무너져서 죽는 것만 알지 내 주처가 그 무너지는 하늘도 받칠 수 있다는 도리는 모르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무서워서 발발 기고 피하니 내가 받칠 수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 한 사람이 받쳐서 여러 사람이 다 살게 되고 갈려 죽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까지 피하니까 하늘은 무너지게 돼요.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고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정한데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물러서니까 안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해.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고 벌써 마음으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 법이란, 무의 공법이라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는 까닭에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닙니다. 온갖 것을 따져서 '이거는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나 '이거는 될 수 없겠다' 하는 것이나 둘 다 아닙니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밀고 넘어가는 믿음과 그 패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해 봤습니다. 내가 해 보지 않고는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을

29면에서 계속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실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극난에 처해 있을 때 주인공만은 꼭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음이 가서 내맡길 수가 있다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도 또 맡기면서 의젓하고 그냥 태연하다면 그건 가져없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가져없이 해결이 나는 이유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다 움직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들이 보살 역할을 하는 거죠. 옹도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들어가 조절을 해서 한마음으로 귀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고 난 일이 벌어졌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돼 준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찾았다고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몸이 아팠을 때 거기다 맡기면 약사보살이 되구요.

그러니 한 뿌리 안에서 온 가지가 다 나오 있고 잎이 다 생기고, 하나하나의 가지마다 꽃이 피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 뿌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며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것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부르면 어떡합니까? 한 군데만 찾아서 다 그냥 차근차근히 차례차례 나오는 대로 자기의 옹도에 맞추면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99% 부처인데 1%가 막이 막혔어요. 왜냐? 정신계 물질계가 콤팩트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정신계는 생각이 안 하고 자기 물질인 자동차가 자기라고 하거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운전수하고 콤팩트가 돼야 될 텐데 몸통이 자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나무가 뿌리와 자기 싸이 콤팩트가 돼서 자기라고 그래야 될 텐데 뿌리는 뻗고고 싸이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결집이 많겠습니까? 싸과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배우게 해 줄 수도 없고 깨닫게 해 줄 수도 없고, 똥 뉘 줄 수도 없고 밥 먹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죽여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부모자식기간에도 그렇고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에서 한 식구만 다니면서 배우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각자 자기가 일어설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볼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고, 틀 아닌 줄 알아야 하고 벗어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잔뜩 돼 가지고는 현실에 아주 쉽지 못하리만큼 아픈 타격을 받게 모두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번 잘 쓰는 데, 마음 한번 잘 먹는데 얼마나 넓어지고 동글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지며, 위로는 조상들이 건져지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영원토록 건져지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돈을 하찮은 걸 다 주고 팔라고 그래도 못 파는 공부입니다. 다 준다 해도 그거는 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 가지고는 얻지 못하는 도리입니다.

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 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뭇로 받았든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이며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글자 풀이로만 지은 건 아닙니다. 각자 마음의 뿌리와 더불어 결부가 돼서 지었기 때문에 일체제불의 마음과 한마음으로써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오계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걸 안 받았어도 받은 거 이상 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받는 게 더 낫죠.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이 한데 어우러져서 항을 괴워 드리니까 말합니다.

그러니 수계를 받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몸통이 나오기 이전에 업보 있던 거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습의 인과에 의해서, 업보에 따라서 모든 업보의 삼분지일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삼분지일은 없어지지 수계를 받는 분들의 마음이 수계를 받을 때의 마음처럼 지극하게 마음을 잘 쓰고 오로지 내 자아부처, 주인공을 진정으로 믿고 거기다 맡기면서 모든 것은 거기서 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을 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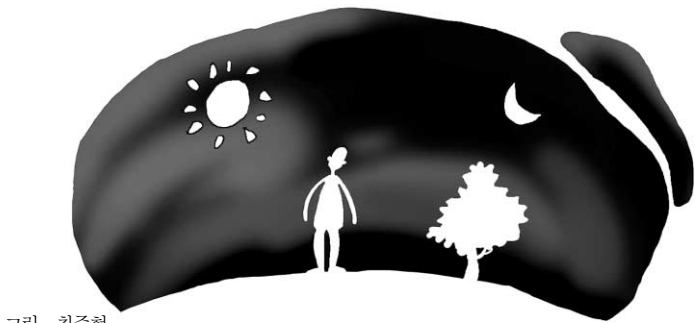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한번 잘 먹고 잘 쓰는 데서

리인 한마음에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만물만생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통신이 되니까,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한생각을 하면 나온다 이겁니다. 털구멍과 같아요. 털구멍 터뜨림과 같아요. 거기에서 이 우주를 뚫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 한 생각 끝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생각 중심에서, 하나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자기의 옹도에 따라서, 틀에서 사건이 있다면 주해신이 돼 줄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돼 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도 돼 줄 것이고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보살도 돼 줄 것이고, 신에 올라갈 건이 있다면 주산신이 돼 줄 것이고... 이 모두가 한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한데 합쳐져서 들어가야 결집이 없을 텐데 항상 뿌리는 뻗고고 싸이 자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전자에 부처님께선 "너희들 깊고 깊은 마음속에 바로 참나가 있으며, 참나가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시자로 끌고 다닌다니라." 하셨습니다. 시자로 끌고 다닌다면 몸통이는 항상 심부름을 해야 되죠. 몸통이가 없으면 상대에게 보이지 않아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몸통이를 형성시키는 거죠. 속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고 겉에서는 그럴 때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몸통이를 자기라고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통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를 이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잠자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를 가르쳐 줄래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기는 하되 믿지는 말라. 믿는 것은 네 불성, 네 뿌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끄는 사람의 말과 뜻과 행이 어떤가를 보고 따르라." 심성 해탈이 있는가 하면 학문 해탈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경전을 외로도 읽고 바로도 읽고 거꾸로도 읽고, 아무리 그렇게 해탈에 이르러까지 밝게 말로 알아도 그건 말로써 떨어지는 거지 법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되질 않죠. 심성 해탈이아면만이 맑은 뜻에 실천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불리다 저것이 불리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안 맞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이해산을 하고 산란하게 해 봤던들 한 공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고 구멍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를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싸울 생각이 남니까, 모두? 어쩌다가 형성해서 어쩌다 한 칠 나는데, 한 칠 동안에 세세생생을 벗어나려고는 아니 하고 오히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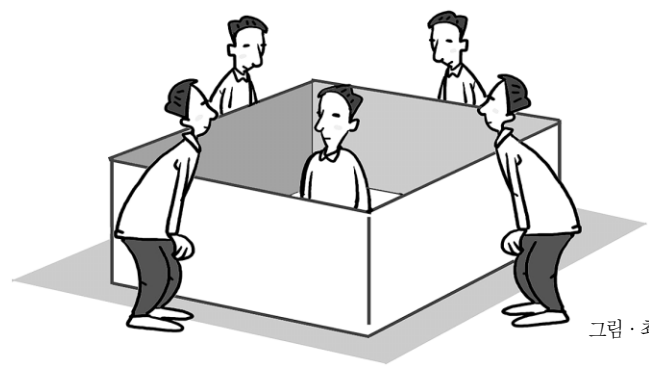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넓어지고 동글어지고 물리가 터져

불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이전에 처음으로 수계를 받았습니. 그때 수계함을 보니 불명이 나와 있더군요. 불명은 어떻게 이름 지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명에 담긴 뜻이 현재 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 공부해서 채우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를 받았으면 실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로 해야지 내가 준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도 공심으로 모든 생명을 나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섬습하게 하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나와 같이만 생각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 한 철 살다가 또 한 철 모습을 없애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다시 진화하고 변화해서 다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하면 상세계로 차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생명의 모습을 타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되려고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주간 법계와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과도 가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계를 받을 때 들었던 마음 그대로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민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주)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돔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무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의 구슬알 다슬기기를 죽은 것과 반 검대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반세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평이리에 넣고 원저 9기마니를 달은 뒤 원저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양숙에 들어온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저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0분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謹賀新年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총 무 용 담
신도회장 심정구

■ TEL 031)444-5935 / 5936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 광
학장 묘 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